

미술과 한국사의 콜라보!

인천해원고, 웹툰작가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인천해원고등학교(교장 김영민)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 간 웹툰작가를 초청해 "미술+한국사 교과융합수업"을 운영했다.

"조선 후기 풍속화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해 4컷 만화로 표현하기"를 주제로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한국문화영상진흥원 소속의 최정구 웹툰작가와 미술 및 한국사교사의 협력수업 형태로 이뤄졌다.

이번에 진행된 미술과 한국사 융합 수업은 외부전문가와 교과교사가 교과내용의 재구성을 위하여 교과 간 주제를 융합한 수업으로 STEAM 교육(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학문을 융합한 체험위주의 수업)의 색다른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들은 작가를 통해 시·공간에서 만났던 웹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과 더불어 실시간으로 질문에 고품으로 구별되는 인기 캐릭터의 모습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업에 참여한 정윤서 학생은 "수업을 통해 웹툰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됐고 풍속화 수업을 통해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수

있었다"며 중학교 때 읽은 '민화 조선상고사'의 작가와 직접 만나 함께 수업을 한다는 사실에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연 프로그램은 기해 운영한 송영희 미술교사는 조선시대 풍속화 기인 김득선의 '파적'을 모티브로 학생이 교과와 경계를 넘어 자신의 흥미를 통해 창의적 사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융합수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정한 '2016 교과교육개선 일반교 모델학교'인 인천해원고등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협동학습을 통해 교실의 변화를 통한 인성교육까지 견인해내고 있다.

김영민 교장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교육과정과 함께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장으로서 몰입양원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실천하고자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인원섭 기자 as@

행복한 학교문화 누가?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6 북부학생자치원탁토론 한마당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은 11월 9일 부원중학교(학교장 이은덕)에서 북부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학생독립운동일"을 맞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2016 북부 학생자치원탁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한 북부학생자치원탁토론 한마당은, 학교현장의 주제인 학생이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진정한 소통과 토론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되었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강정환 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여러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는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오늘 북부 학생자치원탁토론 한마당을 통하여 민주적인 소통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되며 더 나아가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 활동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참가 학생들이 학생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질문을 실시하여 함께 는

의할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고 인터넷에 참가하게 하였다.

또한 '북부 학생자치원탁토론 한마당'이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10월 15일 21개교의 대표 1명씩 총 21명을 학생회 임원으로 대상으로 행사에 앞서 학생 피싱피터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회 지도 교사 및 토론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2일간의 토론회를 통해 학교 내 소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행사는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토론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회 임원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고 내 소문과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원탁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원탁토론은 총 10개 모둠으로 구성된 2명의 학생회피터와 8명의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여, 모둠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피터 리더십'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이미 사전에 각 학교에서 대의위원회를 통해 각자의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기 때문에 진지한 자제로 논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 참여하였으며,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며 논쟁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 야구대회 청라중 우승

청라중학교(교장 박종진) 야구부(청라 원더스) 학생 22명은 10월 28-30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 야구대회에 출전했다.

각 사·도 교육청의 지역 대표 선발전 경기를 거쳐 진출한 14개 대표팀은 양일간 평소 팀 플레이며 키운, 골과 개를 펼쳐 보이고 야구 경기를 통해 다른 지역 학생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청라 원더스는 1차전 경남 안남중을 상대로 4:2로 승리했고, 2차전은 강원권 우승 후보였던 광주 준리중을 10:0으로 4회 돌승을 거뒀다. 예선 경기 결과(2승)와 점수 득실로 조1위를 확정짓고 경북 포항 제철중과 결승전을 치렀다. 1이닝 승부치기로 주판된 결승전에서 청라 원더스는 다양한 공격 전술을 활용해 선취점으로 4득점을 했고, 수비에서는 상대의 번트 작전 차단 및 5-4-3더블 플레이로 무실점 우승을 확정지었다.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연식 야구대회 출전을 통해 교육 관계 개선은 물론이며 학업 스트레스 해소, 예습, 예상심 향상, 스포츠맨십 배양 등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원섭 기자 as@

이런 연수는 2017학년도 과학경진대회에 대비하여 지도교사들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업무 경감 효과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으며, 특히 창의·융합적인 아이디어 산출을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협업 중심의 지도 방안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 2017년 과학경진대회 담당자 연수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연구원 일당과 특별전시관에서 2017년 과학경진대회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연계한 예술축제

동암중, 꽃밭골 축제 개최

행복배움학교인 동암중학교(교장 조성환)는 11월 4일 동암일회에서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예술 축제인 '제1회 동암중 꽃밭골 축제'를 실시했다. 올해 동암중학교는 "지역연계 예술동화학교"로 선정돼 지역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예술교육을 진행하는데 노력해 왔다. 10개학년의 걸출한 동암중학교 역사상 최초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축제를 마련하게 됐다.

이런 꽃밭골 축제는 과거 심정중에서 있었던 축제를 부활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동암중학교의 1인 1예술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지역 사회에 보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지역 내 문화공존의 기반을 형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의 교육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서로가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처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동암중학교의 축제에 직접 참관해 축하인사와 함께 격려인사를 전했다.

축제는 심정2동 풍물단의 시연하고 흥겨운 '삼도풍물'을 시작으로 부평남초 학생들의 바이올린 공연, 동암중 학부모 학생·교직원·지역주민이 함께 연주하는 기타공연, 동암중 학생들의 댄스나 기타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동암중 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학부모 동아리의 난타 무대가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다. 전문가 공연으로 인천음악협회 산하단체인 '위스트 윈드 앙상블'의 웅장한 공연과 동암중학교 출신의 성악가 테너 정진성의 공연도 더해져 풍성한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축제에 참석한 지역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동암중학교 학생들 모두 동암중학교로 이동하여 공동리봉사에서 제공하는 자정편을 먹으면서 이날의 축제에 대해 답사를 나누었다.

이날 축제는 부평구청, 심정1동 주민센터, 심정2동 주민센터, 동암교회, 동암신협, 신성새마을금고, 인천문화재단, 동암중 학부모회의 후원을 받아 준비되었고, 공동리봉사회 부평구지부의 협정으로 공연과 음식이 어우러진 축제를 즐기기 마무리했다.

인원섭 기자 as@

학교환경 청결지킴이

사회적기업(예비) 새한에이치엠입니다



- 학교청소 인력, 경비인력 파견 및 관리
- 건물 내외 청소, 바닥청소 및 코팅, 유리창 청소, 학교 대청소
- 수목수목, 모래수목, 교실(특별실)수목, 급식실수목
- 저수조 청소 및 수목, 배수로 청소, 폐기물 처리
- 냉난방기 청소, 선풍기 청소
- 급식실 후드(덕트) 및 바닥 청소
- 각종 청소용품 및 장비 납품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7번길 14, 102호
 Tel. 032-426-9399, Fax. 032-426-9397
 서북지사 : Tel. 032-512-3782, Fax. 032-724-0782

www.사회적기업(예비)saehan.com

Saehan

전문직업인으로 가는 길은?

용현여중, 진로 멘토와의 만남 실시

용현여자중학교(교장 정두원)는 10월 26일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하나로 직업전문인 15명을 초청하여 '진로 멘토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3학년들을 대상으로 13시 10분부터 15시1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변호사, 패션디자이너, 비행기승무원, 일러스트레이터, 제과제빵사, 아나운서, 버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프로듀서, 간호사, 동물조련사, 금융자산관리사, 푸드스타일리스트, 심어솔리더, 예니메이커 등 15명의 직업인이 초청됐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특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진로 멘토를 선택하여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꿈꾸던 직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듣고, 직접 직업인과 만남으로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것은 물론 궁금한 사



항도 물어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용현여자중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진로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진로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방침이다.

인원섭 기자 as@

영종중, 전문 직업인 특강 실시



영종중학교(교장 문관식)는 11월 1일 생라코딩 연수소 홍진표 대표를 초청해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인 특

강을 실시 학생들이 꿈의 키워다.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해 실시된 특강에서는 머릿속에 흩어진 생각을 컵

퓨팅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기술인 '생각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다.

참여한 고교 학생은 "생각코딩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문장, 단락 등 잘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글로 보고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생각코딩은 참 대단한 기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인식 교감은 "학생들이 생각코딩을 배움으로 사고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른 분야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생각 프로그래밍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홍진표 강사는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 왔지만 다른 곳과 다르게 학생들의 진지한 강의 태도와 많은 질문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원섭 기자 as@